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95>

JCCT 2023-1-13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부모의 행복감이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s' Happiness on Children's Autonomy

정영미*

Jeong Yeong Mi*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부모의 행복감, 아동의 자율성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부모애착과 부모의 행복감이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2019년)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Pearson's의 적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자율성에 관해 부모애착과 부모의 행복감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부모의 행복감, 아동의 자율성은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애착의 하위 변인 중에서는 모 신뢰감, 부 신뢰감, 모 의사소통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고, 부모 행복감에서는 모 행복감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애착이 부모 행복감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부모와 더욱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아동을 지지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어 : 아동, 부모, 애착, 행복감, 자율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attachment, parental happiness, and children's autonomy, and to find out in detail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happiness on children's autonomy.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on data from the 12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2019), and Pearson's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was calculated fo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happiness on children's autonomy.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al attachment perceived by children, parental happiness, and children's autonomy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among the sub-variables of parental attachment, maternal trust, paternal trust, and maternal communication were found to have an influence, and only maternal happiness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parental happiness. This means that parental attachment acts as a more important variable than parental happiness. Therefore, we need constant attention and effort to support children in a more intimate and stabl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so that they can gain life satisfaction through active and proactive choices and decisions.

Key words : Child, Parents, Attachment, Happiness, Autonomy

*정희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아동보육복지과 초빙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11월 24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November 24, 2022 / Revised: January 4,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mongsil57@hanmail.net

Dept. of Child Care & Welfare, Gyeongnam Geochang Univ,
Korea

I. 서 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가올 사회 변화에 직면하여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려면 아동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외부의 기대나 압력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 이 시기에 자율성은 중요한 요인이다[1, 2].

자율성은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아동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적극적이고 자기조절적인 욕구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자기결정이론에서 주장하는 핵심개념 중 하나로 자신의 행동을 자발적인 것으로 경험하려는 욕구이며,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성 획득은 청소년으로의 전환기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발달적 과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기 아동기에 해당하며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리는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3-5].

아동의 자율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애착이론이다. 애착이론이란 개인이 특정 타인에게 맺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개인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영유아기와 달리 아동기의 애착은 신체적 접근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 대상을 안전 기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하겠다[6, 7].

실제 초등고학년 아동의 경우 아버지애착 및 어머니 애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존감이나 사회적응력이 높고 독립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율성이 뒷받침 될 경우 아동의 내면적 동기유지는 물론 창의성, 정보 수용 및 활용 능력이 커지고 자신의 행동을 더 즐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부모애착을 촉진하는 것이 아동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주요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8-10].

아동의 자율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또 하나의 변인은 부모 행복감이다. 부모 행복감

이란 삶에서의 만족과 성취감,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안정감, 자녀의 바른 성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행복감을 말한다. 가족 구성원 중 부모는 자녀의 기본적인 인간 특성과 삶에 대한 태도를 동일시하도록 하는 교사인파 동시에 중심환경이다. 이에 부모가 자신의 삶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낄 때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이 되려는 아동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된다고 보여진다. 아동과 관련된 부모 변인들의 연구는 대부분 양육태도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부모의 행복감과 아동의 자율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1-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변인들과의 관계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데 필요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부모역할에 대한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애착, 부모의 행복감, 아동의 자율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애착, 부모의 행복감이 아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2019년) 자료로만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2,150 가구 중 현재 유지되고 있는 1,412여명의 표본 중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 부모 행복감, 아동의 자율성에 대해 모두 응답한 104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 분	내 용	빈도(%)
아동성별	남	545(52%)
	여	503(48%)
아동월령	아동 평균 월령	136.35개월
부모연령	어머니 평균 연령	42.16세
	아버지 평균 연령	44.66세

2. 측정도구

1) 부모애착

아동이 지각한 부모 애착은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애착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외감을 제외한 의사소통, 신뢰감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각 Cronbach α 는 부모 애착 $\alpha = .797$, 모 애착 $\alpha = .806$ 으로 나타났다.

2) 부모 행복감

부모 행복감은 총 4문항으로 7점 Likert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부모 행복감 $\alpha = .901$, 모 행복감 $\alpha = .913$ 으로 나타났다.

3) 자율성

아동의 자율성은 ‘나는 내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 총 5문항으로 3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성의 Cronbach α 는 .67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측정 도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독립변인(부모애착, 아동의 자율성)의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부’ 의사소통 평균은 3.551($SD=.776$), ‘부’ 신뢰감은 3.990($SD=.781$), ‘모’ 의사소통은 3.955($SD=.732$), ‘모’ 신뢰감은 4.196($SD=.697$), ‘부’ 행복감은 5.326($SD=.941$), ‘모’ 행복감은 5.211($SD=.977$), 아동의 자율성은 3.089($SD=.336$)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 의사소통	3.551	.776	-.109	-.507
부모 신뢰감	3.990	.781	-.532	-.365
모 의사소통	3.955	.732	-.472	-.242
모 신뢰감	4.196	.697	-.724	.048
부모 행복감	5.326	.941	-.343	-.038
모 행복감	5.211	.977	-.556	.441
자율성	3.089	.336	-1.131	.943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3과 같다. 부모애착, 부모 행복감과 아동 자율성 간의 상관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의 하위요인과 아동의 자율성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모 신뢰감이 .371($p<.01$)로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 의사소통이 .243($p<.01$)으로 가장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행복감과 아동의 자율성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부모 행복감이 .109($p<.01$)로 모 행복감 .106($p<.01$)보다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1	2	3	4	5	6	7
1	1						
2	.569**	1					
3	.592**	.432**	1				
4	.317**	.555**	.509**	1			
5	.067	.072	.062	.067	1		
6	.074	.087**	.051	.042	.441**	1	
7	.243**	.322**	.311**	.371**	.109**	.106**	1

(1.:부 의사소통, 2:부 신뢰감, 3:모 의사소통, 4:모 신뢰감, 5:부모 행복감, 6:모 행복감, 7:자율성)

3. 부모애착, 부모 행복감이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93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53-0.99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2-1.88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001$

에서 유의하였다.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력은 20.5%로 유의미하였다. 하위변인을 설명력의 크기순으로 제시하면 ‘모’ 행복감($\beta=.08, R^2=.17, p<.01$), ‘모’ 의사소통($\beta=.11, R^2=.17, p<.001$)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 신뢰감($\beta=.14, R^2=.16, p<.001$), ‘모’ 신뢰감($\beta=.22, R^2=.14, p<.0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애착, 부모 행복감이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happiness on autonomy

독립변인 (하위변인)	B	β	T	R^2	F
상수	2.05		26.04***		
부모 애착	모 신뢰감	.11	.22	5.69***	.14
	부 신뢰감	.06	.14	4.19***	.16
	모 의사 소통	.05	.11	3.19***	.17
	부 의사 소통	.03	.08	2.76***	.17
부모 행복감	.03	.08	2.76***	.17	53.94***

IV. 논 의

본 연구는 목적은 부모애착과 부모의 행복감이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모애착과 부모의 행복감, 아동의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변인들이 아동의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 부모의 행복감,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 부모행복감과 아동 자율성 간의 상관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애착이 안정적이고 부모의 행복감이 높으면 아동의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수용적이고 반응적이며 독립을 격려하는 안정 애착일수록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아동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아동의 자율성이 성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부모와 가장 가깝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아동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자녀와 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5].

둘째, 부모애착,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하위 변인이 아동의 자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애착의 하위 변인 중에서는 모 신뢰감, 부 신뢰감, 모 의사소통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부모가 자신을 신뢰한다고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자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단순히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감정까지도 전달하는 것이며 아동의 자율성에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동과 부모 간에는 높은 신뢰감과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아동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행복감에서는 모 행복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행복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보다 집중하고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상호작용한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10, 17, 18].

본 연구는 부모애착, 부모행복감, 아동의 자율성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부모요인을 도출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애착, 부모행복감, 아동의 자율성을 연구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아동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자율성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부모요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이 각각 다를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의 자율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각각 역할들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를 통해 아동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율성에 관한 부모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변인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개인적 변인 등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검사로 인해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제한 점이 있어 관찰이나 보고 등 다양한 검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단일 학년만 분석하여 추후에는 다수의 연구대상을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일반화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J. Cho. "The Effects of Autonomy Promotion Education Activity on the Autonomous Behavior of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5, No. 2, pp. 51-75, 2013.
- [2] E. B. Hong and S. H. Rho. "Effects of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Mediated Effects of Child Autonomy," *The Society for Open Parent Education*, Vol. 14, No. 3, pp. 1-15, 2022. DOI : 10.36431/JP.E.14.3.1
- [3] J. Y. Park and S. B. Lee.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Self-determin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4, pp. 239-252, 2022.
- [4] Noom, M. J., Deković, M., and Meeus, W. H.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 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Vol. 22, No. 6, pp. 771-783. 1999.
- [5] Ryan, R. M., and Deci, E. L.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1, pp. 54-67. 2000.
- [6] J. K. Lee. "A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Delinquen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4, No. 2, pp. 51-73. 2012. UCI : G704-002137.2012.14.2.010
- [7] Armsden, G. C., and Greenberg, M. 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pp. 427-454. 1987.
- [8] D. G. Seong and C. K. Kim.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Children's Happi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Higher Grades : With a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Abilitie,"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4, pp. 129-142. 2015. DOI : dx.doi.org/10.5723/KJCS.2015.36.4.129
- [9] Allen, J. P., Hauser, S. T., Bell, K.L., and O'Connor, T. G. "Longitudinal assessment of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family interactions as predictor of adolescent ego-development and self-esteem," *child Development*, Vol. 65, pp. 179-194. 1994.
- [10] K. J. Kwon and J. H. Ha.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steem on Emotional-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3, pp. 509-519. 2018. DOI : 10.5762/KAIS.2018.19.3.509
- [11] B. W. Cho. "A Study on Relation of Young Children's Ego-resilience on Mot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Association for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4, No. 1, pp. 91-115. 2017. DOI : 10.22155/JFECE.24.1.9.1.115
- [12] Niemiec, C. P., Lynch, M. F., Vansteenkiste, M., Bernstein, J., Deci, E. L., and Ryan, R. M.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utonomous self-regulation for college: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ce*, Vol. 29, No. 5, pp. 761-775. 2006.
- [13] H. O. Kim and K. H. YOO. "Unsuppor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Competence, Autonomy and Learning Amotivation: Detecting Patterns of Influence and Differences in School Level and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0, No. 3, pp. 45-65. 2017.
- [14] H. O. Kim, S. J. Kim and K. H. YOO. "Dimensions of learning amotivation in middle school: Effects of parental attitudes, teachers' attitudes and previous academic achievement, mediated by perceived competence and autonom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1, No. 3, pp. 27-50. 2018. DOI : 10.35574/KJDP.2018.09.31.3.27

- [15]Y. H. Kim. "The Effect of Insecure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s of Emotional Experiences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9, pp. 231-256. 2012. UCI : G704-000387.2012.19.09.004
- [16]M. J. Kim and J. W. Kim.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Happiness and Preschoolers' Attachment Stability, and Peer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14, No. 2, pp. 5-28. 2010. UCI : G704-002073.2010.14.2.001
- [17]Diener, E., and Emmons, R. A.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7, No. 5, pp. 1105.
- [18]Csikszentmihalyi, M., and Seligman, M.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pp. 5-14. 2000.